“청화 대종사 수행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청화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 학술 세미나 11월 30일~12월 1일 열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례재는 무상 스님과 대주 스님의 종사영반으로 마무리됐다.

염불선을 주창하며 근현대사 최고의 수행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무주당 청화 대종사(1923~2003)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와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벽산무주회(문장 용타)가 주최하고 청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전남 무안 혜운사에서 개최됐다.

12월 1일 진행한 다례재에는 벽산무주회 문도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국에서 모인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스님의 공덕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참석 대중이 함께한 보리방편문 봉독을 시작으로 공덕패 수여, 행장소개, 환영사와 축사, 격려사가 진행됐다.

벽산무주회 문장 용타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평생 철저한 수행과 교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던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보리방편문’을 늘 염송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올해 큰스님의 성역화 사업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큰스님의 덕화를 입은 문손 스님들과 신도들이 도량을 가꾸고, 법회를 이끌어줘 감사하다. 큰스님의 법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무안불교사암연회회장 법산 스님, 청화불교대학장 김영동 교수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벽산무주회는 청화 스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공덕을 지은 무상 스님, 토진 스님, 명원 스님, 혜용 스님, 본연 스님과 임창욱, 박현주, 배영자, 박선자, 김영동, 배광식, 유동숙, 정해숙, 윤기원, 조준호, 황민환, 반야화, 이중근, 김윤석, 권정자 불자에게 공덕패를 수여하고, 박문재, 김산, 서삼석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주 선우선방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발원문 봉독에 이어 무상 스님과 대주 스님의 종사영반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11월 30일 혜운사 청화대종사기념관에서 진행한 ‘제12차 청화사상연구회 학술세미나’는 ‘염불선의 성립과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청화 대종사의 행장’에 대해 강행원 화백의 발표와 대주 스님(성륜사 주지)의 토론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발표와 김용남(성균관대 교수) 토론 △‘인도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성립과 계승’에 대해 조준호 교수(동국대)의 발표와 김치온 교수(진각대) 토론이 진행됐다.

청화 대종사는 1923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태어나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40여 년 동안 장좌불와, 일종식을 통해 철저한 수행과 대중교화를 펼쳤다. 2003년 곡성 성륜사에서 법납 56년 세납 81세로 원적에 들었다.

청화대종사기념관이 들어선 혜운사는 청화 스님의 출생지에 조성한 사찰로, 지난 2020년부터 건축면적 675㎡, 연면적 912㎡ 규모로 기념관, 명상수행관 등을 조성해 청화 대종사의 유품과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창원불교聯, 33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배한봉 · 이용민 · 이상연 수상 12월 4일 창원 성주사서 개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제33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2월 4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문화상에 문학상 부문 배한봉 시인, 예술상 부문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행원상에 이상연 경남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언론학술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문학상 부문 수상자 배한봉 시인은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 후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현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경남문학관의 시창작 지도강사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과 경남 문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 ‘우포 늪 왁새’를 통해 우포 늪을 한국생태시문학의 상징적 공간으로 널리 알렸다.

예술상 부문 수상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도내에서 수학하고 줄곧 활동해온 성악가, 지휘자이자 음악학자, 문화기획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경남지역은 물론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 출범 초기부터 실무를 총괄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부문 대표축제로 발전시켰다.

행원상 부문 수상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왔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장학 사업과 라이온스협회 총재 활동으로 사회봉사를 선도하는 등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시상은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문학상 시상을 맡았으며, 예술상은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이, 행원상은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이 각각 시상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문학은 우리 삶의 맑은 영혼을 드러내는 창작물의 진원지이며 예술은 다양한 창작물을 숙성시켜 아름다운 형상을 낳는 결과이다. 또 행원은 보현행원의 준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바라밀 보살행이다”며 “오늘 수상하신 세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삶의 수범을 보여줬다”고 치하했다.

산해원문화상은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창원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제정한 상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단법인 나누우리 캄보디아서 자비나눔

교실 페인팅 · 칠판교체 등 식수정수시설 준공식도 열려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캄보디아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사)나누우리는 11월 29일에서 12월 4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쩐라옹 초등학교에서 ‘2023년도 캄보디아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식수정수시설 건립사업’을 진행했다.〈사진〉

평균 낮 기온 30도 이상 뜨거운 날씨에서도 나누우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실 외부 페인트 작업, 칠판 교체에 나섰고, 각 교실마다 3개씩의 선풍기를 설치했다.

12월 2일에는 인근 쩐라옹 사원 스님들과 학생, 교사,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수정수시설 준공식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만우 스님은 “나누우리의 2세대 식수정수시설을 쩐라옹 초등학교에 건립하게돼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히 자라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라옹 초등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준공식 참석자 전원에게는 구충제가 전달됐다. 어린이들에게는 슬리퍼, 인형, 학용품 등도 선물했다. 마을 주민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백미 1포와 우산, 볼펜 등을 지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하동 미서암, 화엄산림 회향법회 봉행

12월 3일 경내 대법당에서 명오 스님 “믿음 씨앗 심어”



하동 미서암(주지 명오)이 12월 3일 경내 대법당에서 제13차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서암 화엄산림 법회는 2022년 11월 입재해 1년간 13번에 걸쳐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의 저서 〈화엄경 입법계품 지남도 해설서〉를 교재로 선재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공부했다.

미서암 주지 명오 스님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갈 바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준 용학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화엄산림 법회를 발원하고 동참한 미서암 불자님들의 열정으로 옹골찬 믿음의 씨앗 하나를 또다시 심었다”고 회향을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원노인복, ‘어르신 뇌 건강 학교’ 성료

9월부터 11월까지 12회 걸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대표 일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서원노인복지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인지 활동 서비스 한국 에자이와 함께 12회에 걸쳐 지역 내 고령 어르신들의 기억력 증진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 에자이와 함께하는 뇌 건강 학교’에서는 인지기능 강화 솔루션에 기반한 신체, 인지, 영양, 정서, 사회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서원노인복지관장 석초 스님은 “이번 뇌 건강 학교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